

짧은 시간이지만  
독도에 대한 마음은 전하고 싶어

— 강치호걸스 독도사랑 자료집 —

## 목차


1. 과거의 독도

2. 미래의 독도

3 독도 사랑을 실천해준 시민들의 한마디

4 강치호걸스의 독도 사랑 실천 체험담

5 시민과 함께 푼 퀴즈

 참고 문헌

## 1. 과거의 독도

### 1) 지증왕의 우산국 복속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의 3절 시작은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으로 독도가 우리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512년의 우산국 복속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만큼 사람은 살지 않았으나 독도의 존재는 우산국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며 지증왕 13년의 우산국 정벌은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또 아슬라주(阿瑟羅州)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弓陵島)가 있었다. 둘레가 2만 6천 7백 30보였는데 섬사람[島夷]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하여 신하되기를 거부하였다. 왕은 이찬(伊飡) 박이종(朴伊宗)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박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일렬로 세워 놓고 그들을 위협하며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놓겠다.” 하자 섬사람들은 두려워 항복하였다. [왕은] 이종에게 상을 내려 주백(州伯:주의 장관)으로 삼았다.

— 삼국유사 —

### 2) 세종실록 지리지 속의 증거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조선시대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 태조 때의 쇄출 기록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버려진 땅이라 주장하였으나, 태조 이후 세종 때의 지리지 기록을 확인하여도 독도가 버려진 땅이란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세종실록 지리지 >

### 3) 속종과 안용복

많은 사람들이 독도 지킴이로서 떠올리는 인물로는 안용복이 있을 것이다. 독도의 수호자로서 독도 사랑을 실천했던 안용복은 에도막부와 담판을 통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해 주었다.

“계유년(1693년) 봄에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등 2인을 피어내 (백기주로) 잡아서 가버렸다”. 이에 안용복은 백기주(伯耆洲) 태수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끌고온 부당성을 항의하자,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처리를 막부에 문의하였다. 이 안용복 문제로 조선과 일본 및 일본 내 대마도와 막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1696년 1월 아부풍후수(阿部豊後守)는 관백 덕천강길(德川康吉)의 재가를 얻어 “지리적으로 인번 보다는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유시(諭示)하였다.

1697년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도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출항을 불법으로 삼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삼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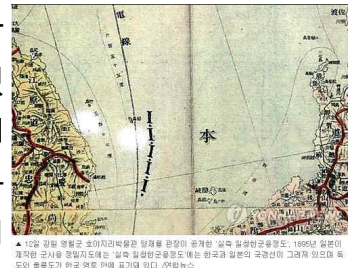
### 4) 고지도 속의 증거

여러 고지도를 살펴보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 팔도 총보 >

이것은 19세기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측 일천한 군용지도를 비롯하여 삼국 접양지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도로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지도이다. 우리나라 측의 팔도 총도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일본이 말하는 ‘버려진 섬 독도’가 근거 없는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 1895년 일본 육군 소위 지리박물관 장제룡 관장이 관개한 '실측 일천한군용지도'. 1895년 일본이 개척한 군사용 중일지도에는 '실측 일천한군용지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이 그려져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에서 한국 영토 안에 표기해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 삼국 접양지도 >

## 5) 고종의 대한제국 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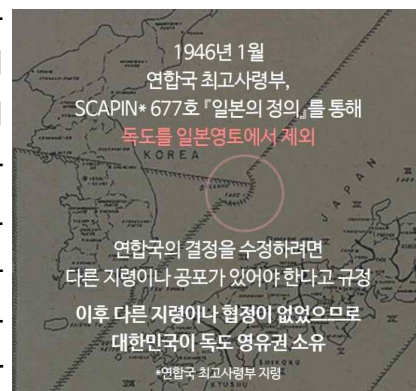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鬱島)을 군수(郡守)로 개칭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 등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한다.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은 랑고도(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라며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시마네현 오키도 소속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했다.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이다. 주인이 없는 섬은 먼저 점유하는 쪽의 영토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전 세계적으로 공포하는 것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발표 하였는바 일본의 무주지 선점이란 주장은 억측이라 할 수 있다. 영토 개념이 불분명한 고대의 영토 획정이 아닌 20세기에 들어서며 국제 사회에 정식으로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 41조에 대해서도 '석도는 울릉도 주변의 암초 중 하나이며 독도는 무주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울릉도 주변에 석도라 불릴만한 섬은 독도밖에 없다는 점과 이전부터 독도를 석도로 칭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억측이라 할 수 있다.

## 6) 수난 이후 광복 독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에 독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조약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완도 거제도 등 대한민국에 무수히 존재하는 섬들의 이름을 나열해야 영토반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 독도는 1905년 일본이 불법 점거한 땅으로 우리가 반환받아 마땅한 영토입니다.



## 2. 미래의 독도

### 1) 독도 내 천연자원



미래의 천연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한 독도! 일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자원 채굴 처로 독도를 확보하려 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게 천연자원의 존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은 조경 수역으로 해산물 또한 풍부합니다. 수산물의 소비가 많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독도어장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며,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서민들의 밥상에는 더 이상 생선 요리가 올라가지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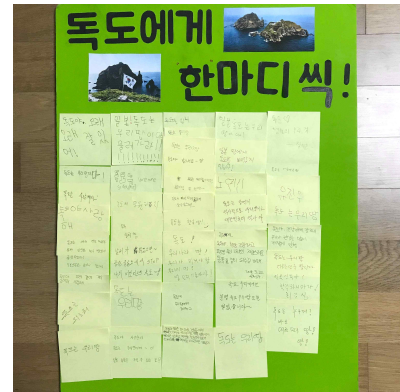
### 2) 군사적 요충지로의 독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 일러 3국과 관련된 군사적 요충지로서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하여 현재 독도 수비대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사라진다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독도를 언제 일본에게 빼앗길지 모릅니다.

### 3. 독도 사랑을 실천해준 시민들의 한마디

독도체험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여 상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를 응원해준 시민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독도에 대하여 한 마디를 적어주신 부분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적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힘을 주신 분들의 메시지입니다.



#### 〈 체험활동 동안의 독도에 대한 메시지 〉

- 인천자유공원에서 만난 어린이 : “독도야, 오래오래 잘 있어!”
- 경인아라뱃길에서 만난 어린이들 : “독도야, 힘내” “일본 땅에게 독도를 뺏기지 않아!”
- 인천자유공원에서 함께한 어르신 : “독도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우리땅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다”
- 인천 자유공원에서 함께한 초등학생 : “독도야, 건강하게 잘 지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줄게. 안녕”
- 인천 자유공원에서 함께한 아주머니 : “날씨가 맑았으면 ~ 항상 울릉도에서 stop 나의 버킷리스트 독도~!”
- 경인 아라뱃길에서 함께한 할아버지 : ”독도는 여러 옛날자료들을 통해 엄연한 한국땅임이 증명되었다. 일본인들은 헛소리 하지 마라.”
- 인천자유공원에서 함께한 초등학생 : “일본과 중국은 대마도와 간도를 이미 뺏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땅을 일본에게 뺏기면 안 되고 역사를 전달해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경인아라뱃길에서 함께한 초등학생 : “독도 영원히 우리 것“
- 경인아라뱃길에서 만난 유진우군 : “독도는 우리땅!”
- 인천 자유공원에서 만난 최강심 할아버님 :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인들아 착각하지 마라.”
- 해원중 앞에서 만난 투표자 : “독도! 우리나라 땅!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땅! 넘보지 말아라!”

- 성지초 앞에서 만난 초등학생 : “일본! 독도는 우리땅이야 물러가라!!!!!!!!!!!!!!”
- 화전초 앞에서 만난 초등학생 : ”독도야 우리 곁에 계속 있어줘 사랑해“
- 경인아라뱃길에서 만난 언니 : ”독도야, 사랑한다 독도는 우리땅이여 ~ 일본놈들은 가질 수 없는 곳“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 분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4. 강치호걸스의 독도 사랑 실천 체험담

우리들이 경험하며 느낀점과 강치호걸스의 뒤를 이을 새로운 강치호걸스가 되어 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독도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체험을 하러 와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가 먼저 다가가 같이 활동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거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였을 당시에는 거절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막상 거절을 막상 거절을 당해보니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도 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 두 번의 거절에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세요. 활동을 하는 동안에 거절을 당하는 만큼 저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독도 체험 활동의 과정에서 당당한 자세를 가지세요. 저희는 처음 나간 홍보 활동에서 당당함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당당했더라면’, ‘조금만 더 자랑스러워 했다면’과 같은 후회가 남는 활동이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활동이 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강치호걸스가 아쉬워하는 부분을 다음 강치호걸스가 되어 독도사랑을 실천해줄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체험 활동을 하면서 독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독도 체험활동은 제 마음 속의 자산으로서 남아 있으며, 작게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한 추억이자, 크게는 독도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체험의 과정에서 저희의 편이 되어주신 시민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함께 분노해주는 시민들,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아이들과 같이 저희 강치호걸스는 4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4명에서만 한다고 여긴 독도 체험 활동은 사실 시민들 모두와 함께한 활동이었으며, 저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도 체험 활동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며, 가슴 속에 깊이 남는 보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 5. 시민과 함께 푼 퀴즈

▶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 맞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 〈 원곡 가사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십칠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십삼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쪽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 〈 시민들에게 낸 문제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 )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 )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 ) 강수량은 ( )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 )  
( ) 물새알 해녀 대합실  
십칠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 ) 십삼년 섬나라 ( )  
세종실록지리지 오십쪽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 땅 ( )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 )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 )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 참고 문헌

-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http://db.history.go.kr/>), 삼국유사
- 조선왕조 실록(숙종실록)
- <http://www.dokdohistory.com/main.do>(독도연구소)
- <http://www.sericeo.org/>